

◆ 나허야(娜荷芽)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최근에는 민족주의적 역사관과 그에 따른 역사교육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그 대안으로 지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그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 혹은 민족 단위가 아닌 공통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의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상의 제시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부각되는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동아시아에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몽골을 포함한 중국, 한반도의 남북한, 일본 등이다. 몽골을 제외한 해당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바닷길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자 문화권이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천 년 동안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문화적 동질성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의 대부분은 13 세기에서 14 세기 후반에 걸쳐 몽골에 의해 정치적으로 통합 된 바가 있다. 이 기간 동안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적 교류와 융합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그 문화적인 영향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와 몽골의 만남은 13 세기 초 무렵 고려 측이 몽골에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몽골 사자(使者)의 고려 방문이 잦아지며 매우 거만하고 과도한 양의 조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사자의 대표격이 1221 년부터 매년 공물을 받고자 찾아온 ‘저고여(著古與)’라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저고여는 1231 년에 조공을 받고 돌아가던 중 압록강을 넘는 곳에서 죽어 버린다. 당시 몽골은 칭기즈칸의 뒤를 이어 우게테이가 즉위하고 있었는데 우게테이 칸은 고려에 저고여의 죽음의 책임을 물으며 6 번에 걸쳐 군대를 보냈고 이에 결국 고려는 1259 년 몽골에 전면 항복하기에 이른다.

이후 제주와 몽골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전 제주에는 탐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지만 고려에 의해 합병을 당하고 만다. 제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등을 잇는 중간 지점으로 좋은 싫든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가 요동 칠 때는 심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제주와 몽골의 첫 교류 내용을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고, 이가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역사관과 함께 몽골 제국 몰락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한쪽을

중국 지배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족은 오랑캐로 보는 화이론(華夷論)이 넓고 깊게 이어져 온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국가와 민족 단위가 아닌 제주의 대외 관계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해 볼 때 제주와 몽골의 첫 교류는 제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다. 예를 들어 제주에는 몽골로부터 말을 데려와 운영하는 국영 목장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제주마’는 제주도의 재래종인 ‘과하마(果下馬)’와 북방에서 들려온 외래종 ‘호마(胡馬)’와의 혼혈종이며 몽골 지배 시대의 몽고마와 서역마 등이 혼혈·다품종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65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어느 고려인으로부터 일본이 과거 중국에 사신을 보내 통호(通好)하였음을 전해 듣고 이듬해인 1266년 고려 원종에게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는 2통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통은 ‘일본 국왕’에 통호를 호소하는 것이고 다른 한 통은 그 사자를 일본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원종에게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후 쿠빌라이의 몇 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일절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일본 원정, 즉 일본에서 말하는 ‘원구(元寇)’ 또는 ‘몽고 내습’이 발발하게 되었다.

2017년 8월 7일~9일, ‘역사가들은 동아시아의 역사 화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제 2회 한국·중국·일본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 몽고 내습과 13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라는 원탁 회의가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의 고려·일본 침략은 문화적으로는 각국의 자아 인식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화이 질서’의 변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하며 ‘국사’와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의 접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상(歷史像)의 확인이 예상되었다. 이에 4개국의 학자들의 논의도 한층 열기를 띠는 것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몽고 내습’의 유적지 견학 코스로 원구자료관(元寇資料館), 하코자키궁(筥崎宮), 송원(松原)의 원구방류유적(松原元寇防塁跡) 등을 견학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얻은 것이 많았다. 특히 NPO 법인 시카역사연구회의 오카모토 아키자네(岡本顕実) 씨와 하코자키궁의 궁사(宮司) 다무라 카쓰요시(田村克喜) 씨의 역사적 감각의 풍요로움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코자키궁의 누문(樓門)에는 원구 시기의 가메야마 상황(龜山上皇)이 쓴 ‘적국항복(敵國降伏)’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 네 글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을 침략해 오는 적국을 항복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적국이 일본의 뛰어난 덕의 힘에 의해 저절로 굴복하여 통일된다’는 뜻으로 ‘덕으로 왕자의 업’을 이룩한다는 의미이다.

자국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별 역사에만 집중하여 언제까지나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입장의 연구자들과 대화를 진행,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지적 공간의 창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娜荷芽 (나허야) Naheya>

내몽고대학 · 몽고학학원 몽고역사학학부 조연구원. 전공은 동아시아 근현대사, 몽골역사. 2012 년 도쿄대학 대학원 수료(역사학 박사). 무사시대학, 와코대학 강사를 거쳐 현직. 주요 저작 : ‘현대 내몽골의 교육 · 문화 정책 연구’(박사학위 논문, 2012), ‘만주국에 있어서의 몽골인 중등 교육 -홍안 학원을 사례로-’(“일본 몽골학회 논문집” 제 42 호, 2012 년 3-21 쪽), ‘1930~ 40 년대 내몽골 동부에 있어서의 몽골인 활동’(“일본과 몽골” 제 49 권, 제 2 호(130 호), 2015 년 3 월 108-119 쪽) 등.